

# 광양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 연이어 펼친다



꽃망울 툭툭 터지는 3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꽃축제인 광양에서 연이어 펼쳐질 전망이다.  
광양시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개최되고 광양천년동백축제가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등 3월이 축제로 가득 채워진다고 밝혔다.

2023 전라남도 대표축제에 이름을 올린 광양매화축제는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축제장 준비에 한창이다.  
단순히 꽃을 보는 관람형에서 리버마켓, ESG '간길줍깅 in 매화축제' 등 시대의 요구를 실천하는 개념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프

## 광양매화축제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개최

## 광양천년동백축제 25일부터 이틀간...“여행 적극 추천”

로그래미 대거 도입된다.  
축제는 구례, 하동, 곡성 등 섬진강권 4개 기초단체장과 전남도지사 등 내빈이 참여해 동·서 화합과 섬진강 관광시대 원년을 선포하는 뜻깊은 퍼포먼스로 문을 열 계획이다.  
광양매화축제 최초 스폰서십을 유치해 지역 내에서 사용한 3만원 이상 영수증에 500만원 상당 황금매화, 아이패드 등의 경품 기회를 주는 '황금 매화·매실 GET' 이벤트를 펼친다.  
매돌이와 함께하는 AR 인생샷, 매화꽃길 BGM 저장소 등 매실 본고장의 정체성을 살리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흥성리 명인의 쿠킹 클래스 '흥 명인의 매실밥심', 관광객과 함께하는 광양 맛보기 등 광양의 정체성을 살린 오감만족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교통혼잡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관광 약자를 위한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등 모두를 위한 관광수용태세도 눈에 띈다.  
광양매화마을 일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시티투어, KBS 전국노래자랑, 남도속 박할인 빅 이벤트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의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4년 동안 축제를 기다려 온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남대표축제 위상에 걸맞은 축제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릴 '광양천년동백축제'는 올해부터 공식 축제로 전환되면서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  
축제가 열릴 옥룡사 동백나무숲은 선각국

사 도선이 땅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보호되고 있다.  
천년의 기운이 흐르는 동백숲 일원에서 펼쳐질 광양천년동백축제는 동백가요제, 도선국사 참선길 걷기, 동백꽃 하트놀이 촬영 등 이색 체험으로 가득하다.  
또한 도선국사 밥상, 동백막걸리, 동백붕어빵 등 독특한 먹거리와 어린이 사생대회 및 백일장 대회, 전국 사진 촬영대회 등 다양한 세대를 두루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규관광객은 "3월은 인디언들의 달력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달'로 표현될 만큼 만물이 생동하고 변화하는 생명의 달"이라며 "봄이 가장 먼저 오는 광양의 3월은 섬진강을 수놓는 그윽한 매화향에 이어 백계산이 붉은 동백으로 물드는 꽃의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고로쇠, 광양불고기 등 제철 음식이 풍성하고 향긋한 꽃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광양 3월 여행을 적극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현근 기자

## 보성군, 보성읍희망드림협의회-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협약 체결

복지공동체 위한 든든한 복지안전망  
보성군은 지난 6일 보성읍희망드림협의회(조영우·김재균 공동위원장)와 보성을 의용소방대(대장 이주석), 여성의용소방대(대장 김옥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 복지 사업의 전문성

을 높이고,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촘촘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대상자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안전 점검 등이다.  
보성읍희망드림협의회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연계망,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적인 토목·건축 기술 자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든

든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우 공동위원장은 "홀로 사는 노인, 조손 가정, 사업부도, 가정경제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복지대상자에게 주거환경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순천시 저전동 정원마을, 도시재생사업 모범사례 '주목'...주거환경개선 공간혁신

## 경상북도 도시재생 담당자 저전동 사업지 성과 공유 및 현장 방문

순천시 저전동 정원마을이 도시재생사업 모범사례로 꼽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저전동은 최근 20년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로 마을 공간이 침체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에 힘써 마을단위 공간혁신을 이뤄냈다. 빈집을 활용하여 마을호텔(3개소)과 셰어하우스(4개소) 등을 조성하였고, 거점 부근에 유흥지를 활용하여 테마포켓정원(5개소)을 만들었다.  
시는 저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웃사촌 정원·소규모 주민참여 경관개선 등을 통하여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마을호텔, 셰어하우스 등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공유 문화 활동가를 양성하였으며 주민 교육공간으로 조성된 베타민 센터를 활용하여 색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이용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2022년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활용사례형)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전동의 도시재생은 작년 기준, 전라북도 익산시·영암군 주민협의회, 울산도시재생대학에서 방문하는 등 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날 24일 국토부



및 경상북도 도시재생 담당자 40여 명이 저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번 선진지 방문은 ▲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성과 공유 및 차담회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 저전동 도시재생사업지 현장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저전동 마을호텔, 셰어하우스, 공유공간(저전나눔터) 등 저전동 거점 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고, 베타민 저전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밀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여수시, 개항 100주년 기념식 개최

## 4월1일부터 4일까지 개항 100주년 맞아 다채로운 기념주간 행사 준비

여수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을 개항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연다.  
이번에 마련된 행사는 지난 1923년 4월 1일 세관지정항으로 문을 연 여수항의 개항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우선, 기념주간 첫째 날인 1일에는 이순신광장에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여수항 타임캡슐 매설식', '기념식수', '해양 유공자 시상', '여수항 미래 100년 비전선포 퍼포먼스 및 세리모니', '축하

공연' 등이 마련된다.  
이후 4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운영, '여수항 사진전 기념 뮤지컬', '섬박람회 등 시정홍보관 운영', '어린이 만들기 체험', '드론체험', '메타버스 체험관', '요트 승선체험'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3월 시민과 함께 만드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100인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6월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해 기념사업 실행 체계를 만들었다.  
여수=김현근 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